

러셀 만루포... ‘저주시리즈’ 7차전 간다



시카고 컵스의 유격수 에디슨 러셀이 2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3회초 만루홈런을 터트린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카고 컵스 9-3 승리

클리블랜드와 3승3패

71년 만에 월드시리즈(7전 4승제)에 출전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는 올해 다양한 기록을 새로 쓴다. 이번에는 컵스 역사상 최초의 월드시리즈 만루 홈런까지 터졌다.

컵스는 2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9-3으로 승리하고 시리즈를 3승 3패 원점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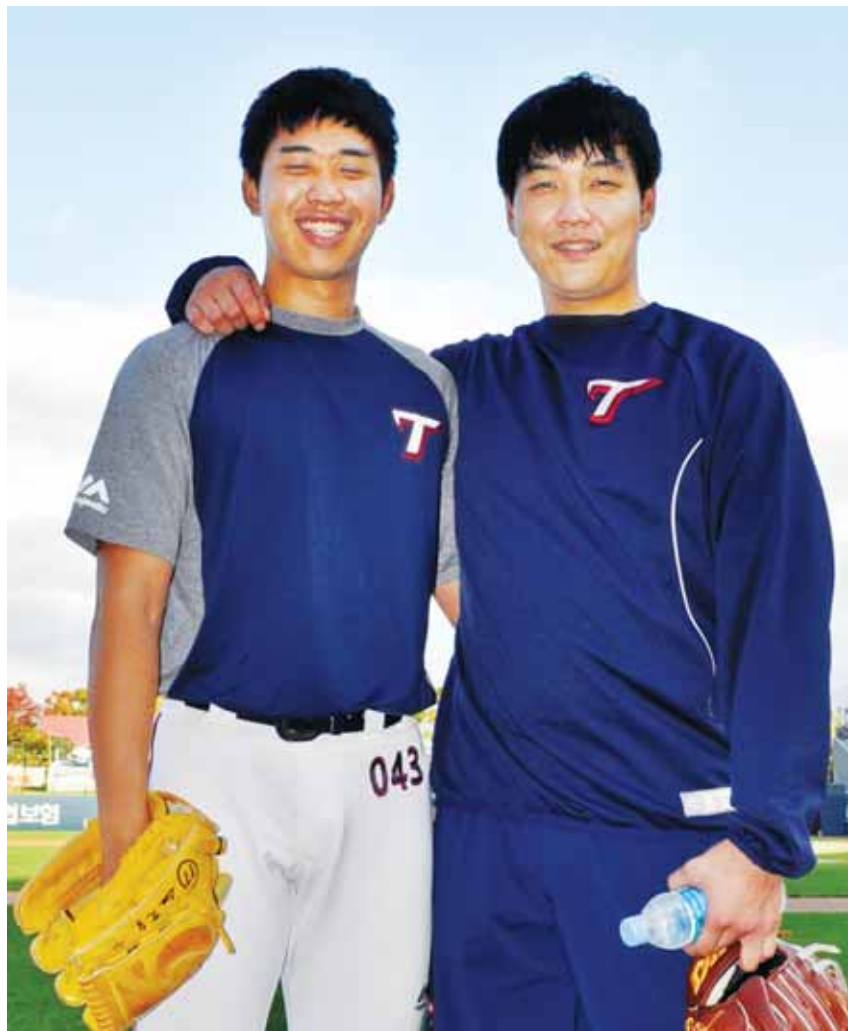
승리의 일등공신은 주전 유격수 에디슨 러셀이다. 러셀은 초반 분위기를 끌고 온 2타점 2루타에 상대를 녹다운시킨 만루포로 혼자 6타점을 쓸어 담았다.

1회초 2사 후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솔로포로 선취점을 낸 컵스는 연속안타로 1-3 루 기회를 잡았다. 타석에 등장한 러셀은 외야 우중간으로 타구를 보냈다. 그사이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았고, 컵스는 3-0으로 앞서갔다. 러셀은 3회초 1사 만루 기회에서는 바뀐 투수 낸 오테로의 3구를 때려 좌중간 담을 훌쩍 넘겼다. 통산 34홈런 중 만루홈런이 단 1개뿐인 러셀은 월드시리즈에서 구단 역사를 새로 쓴 결정적인 홈런포를 기록했다.

클리블랜드는 4회말 마이크 나폴리의 좌중간 적시타로 1점 따라갔다. 5회말에는 킵니스가 솔로포로 다시 1점을 따라갔다. 그러나 컵스는 7회말 2사 후 마무리 아롤디스 체프만을 투입하는 강수를 두며 클리블랜드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컵스 선발 제이크 아리에타는 5.2이닝 3피안타 9탈삼진 2실점으로 2차전에 이어 월드시리즈 2승째를 챙겼다.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7차전에서 판가름난다.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몰렸다가 5차전과 6차전을 잡고 기자회견한 컵스는 108년 만의 우승으로 ‘염소의 저주’를 풀겠다는 각오다.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최종전까지 온 클리블랜드 역시 안방에서 68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경북과 동기인 KIA 타이거즈의 우완 김윤동(오른쪽)과 사이드암 임기영이 마무리 캠프 룸메이트로 호흡을 맞추며 2017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IA서 재회 ‘경북과 에이스’ 김윤동·임기영의 각오

“윤동아, 내년엔 선발해 내가 뒤에서 받쳐 줄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KIA 타이거즈의 우완 김윤동과 사이드암 임기영이 ‘2017시즌 주전’이라는 같은 꿈을 꾸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유난한 룸메이트가 있다. 짓궂은 장난과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각별하게 챙기는 김윤동과 임기영. 두 사람은 우여곡절 다시 만난 옛 룸메이트다.

‘경북고 주장’ 김윤동과 ‘경북고 에이스’ 임기영은 한술밥을 먹으며 프로 선수의 꿈을 꾸던 친구사이다. 경북고 3학년 전반기에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마음고생도 했지만 김윤동과 임기영은 각각 KIA와 한화의 지명을 받으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다.

그리고 김윤동에게 야구 인생을 바꾼 변화의 시간이 먼저 찾아왔다. 경북고 투수란에 이름을 올린 했지만 외야수로 지명을 받은 김윤동. 외야수로도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김윤동은 코칭스태프의 권유에 투수로 전향을 하게 됐다. “잘한 결정인 것 같다. 투수로 전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집에 있었을 것이다”고 웃을 정도로 김윤동에게는 특별한 선택이었다.

다름 변화의 소용돌이는 임기영에게 찾아왔다. 구단의 결정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임기영은 이적이라는 또 다른 변화에 직면했다. KIA가 한화와 계약한 투수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임기영을 선택한 것이다. 임기영은 지명 후 바로 상무에서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KIA 선수가 됐지만 빨간 유니폼 한 번 입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을 보냈다.

‘투수 전향’과 ‘이적’이라는 운명 같은 변화는 두 사람을 다시 한 곳에서 같은

꿈을 꾸게 하였다.

임기영은 “상무에 입대했는데 윤동이 선임으로 있더라”며 “타자로 많이 봤는데 어깨가 좋은 선수라서 투수로 바꾼 것은 잘한 것 같다. 올 시즌 1군에서 야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아직은 낯설기도 한 팀이지만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다.

임기영은 “돌이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 며칠 말도 안 하고 지내기도 하는데 눈을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이 풀린다. 내년 시즌 윤동이 선발로 역할을 하고, 내가 그 뒤에서 뭐든 좋을 것 같다. 뒤에서 친구의 승을 한번 날려버리고도 싶다(웃음)”며 농담을 한 임기영은 “주변 상황을 많이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 이런저런 경쟁에 대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내 역할에 충실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 시즌 김윤동은 불펜은 물론 선발로 수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KIA 마운드의 새로운 전력으로 떠올랐지만 부상과 경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윤동은 희망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긴 올 시즌을 뒤로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김윤동은 “올 시즌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공 한 개’가 어렵다. 경기를 하면서 공 한 개가 얼마나 중요하진지 알았다. 공 한 개 한 개를 더 신중하게 잘 던져야 했다”며 “부상 없이 마무리캠프 잘 보내고 올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 잘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내년 WBC서 커쇼를 볼수 있다?

아리에타 등 美 예비명단 포함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클레이턴 커쇼(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제이크 아리에타(시카고 컵스), 코리 클루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볼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2일 ‘뉴욕 포스트’가 공개한 미국 대표팀 50인 예비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예비명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노아 신더가드(뉴욕 메츠), 델린 베타시스(뉴욕 양키스), 크리스 아처(탬파베이 레이스), 놀란 아레나도(콜로라도 로키스),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 에릭 호스머(캔자스시티 로열스), 이언 킨슬러·저스틴 벌랜더(이상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앤드루 밀러(클리블랜드), 조너선 루크로이(텍사스 레인저스), 버스터 포지(샌프란시스코 자

이언츠), 데이비드 프라이스(보스턴 레드삭스),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 장칼로 스텐턴·크리스티안 옐리치(이상 마이애미 말린스) 등 18명이다.

미국 대표팀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하는 WBC의 우승 경험이 없다. 역대 최고순위는 2009년 2회 대회에 기록한 4위, 통산 성적도 10승10패다. 명예회복을 버는 미국은 2006년 초대 대회 이후 가장 화려한 대표팀을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2006년 미국은 로저 클레멘스, 데릭 지터 등 화려한 선수진을 구성하고도 ‘모래알 조직력’으로 2라운드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커쇼가 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커쇼는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출전하겠다고 말했지만, 올해 허리 부상으로 고생했던 걸 고려하면 구단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연합뉴스

이대호, 시애틀 잔류냐 이적이나

월드시리즈 종료 이틀 뒤 FA 신분

“스콧 서비스 감독님은 ‘내년에도 함께 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로빈슨 카노도 ‘다시 시애틀에 왔으면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이저리거’ 훈장을 달고 지난날 31일 귀국한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밝힌 말이다. 1년 계약을 맺고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이대호는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된다. 이대호는 시애틀에 잔류할지, 아니면 미국 내 다른 구단이나 타 리그 이적을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

오른손 타자 이대호는 올해 시애틀에서 왼손 타자 애덤 린드와 1루수 자리를 양분했다. 시즌 104경기에 출전한 이대호는 타율 0.253, 14홈런, 49타점을 기록했다. 선

발로 출전한 75경기 중 왼손 투수를 상대로 54경기에 나섰지만, 오른손 투수를 상대로는 21경기 출전해 그쳤다.

이대호는 귀국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대타도 재밌었지만,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이대호가 내세운 첫 번째 조건은 ‘출전 기회’다.

시애틀의 디포토 단장과 서비스 감독은 플레튼 시스템(투수 유형에 따라 야수를 번갈아 기용하는 것) 신봉자다. 이대호가 시애틀의 구애를 받아들이면, 일단 내년 시즌 초에는 올해와 같은 기용을 감수해야 한다.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메이저리그 구단이나 한국 혹은 일본으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다. 이대호의 선택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국 야구, U-23 세계선수권 2라운드 진출

한국 야구 대표팀이 23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를 4승 1패로 통과했다.

장재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살티요에서 열린 A조 5차전에서 파나마에 4-5로 역전패했다.

전승 팀끼리 맞붙은 경기에서 패한 한국은 조 2위로 슈퍼 라운드(2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날 한국은 선발 투수 최재홍(한양대)이 7.2이닝 6피안타 8탈삼진 1실점으로 파나마 타선을 틀어막았다.

한국은 1-1로 맞선 8회초 이태훈(홍

익대)이 2점 홈런을 터뜨려 리드를 잡았고, 9회초에는 임병욱(넥센 히어로즈)의 2루타로 1점을 보태 4-1로 앞섰다. 하지만 8회말 2사 후 등판한 변진수(경찰청)가 9회말 무너졌다. 변진수는 실제로 선두타자를 내보낸 뒤, 연달아 안타 4개를 맞고 4실점 해 패전투수가 됐다.

한국 타선에서는 광주 동성고 출신의 이태훈이 홈런과 2루타 포함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고, 김태진(NC 다이노스)과 임병욱도 2안타씩 기록했다.

한국은 4일 B조 1위 일본과 2라운드 조별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